



보도자료

2022. 1. 9.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담당자 : 조형연 대외협력팀장 (010-3933-3949)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17개 광역위원회 출범 완료

- 광역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지역특화형 캠페인 발굴 주력 -

이재명표 ‘기본사회’ 를 핵심 가치로 하는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광역위원회의 출범식을 모두 마무리, 대선 승리를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강남훈)는 지난 8일 경남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위원회 출범식부터 시작된 17곳 광역위원회 출범식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는 21명의 국회의원을 포함, 광역·기초의원, 지역활동가 등 1,800여 명이 참석해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또 이재명표 기본사회를 뒷받침하는 200여 명의 정책단과 1,000여 명의 특보단이 참여,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공약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일까지 특보단을 더 두텁게 구성하는 등 정책홍보를 강화해 지지세를 확산시켜 나갈다는 구상이다.

17곳의 광역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을기본권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기본캠페인을 발굴해 선거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며 강연과 토론회를 통한 정책의 접측면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회의원단과 정책단이 함께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활동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가 전국적 조직을 갖추게 된 만큼 기본사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퍼지길 희망한다” 며 “조만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들을 국민께 보여드릴 예정” 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행사 사진





